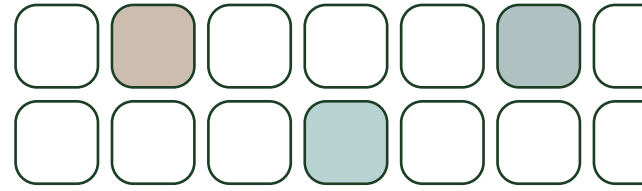


# VD RADAR



## 벤처관련

### 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 및 제3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 개발사업 총괄 워크숍 개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대기업CTO,  
연구소장, 중소기업 CEO, 연구개발자  
등 산학연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하는

“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 및 제3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정부에서 지원한 총 149개 세부과제의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 기술의 토론 등 상호연계가 부족했던 과제 기술 교류가 적극 전개됐다. 또한 R&D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성과 우수자 포상 및 연구과제 포스터 전시회도 마련되어 디스플레이 분야 최대의 기술 교류회가 되었다.

\* 연구성과 우수자 : 모연근 수석(삼성SD), 김재성 책임(LG 전자), 사공동식 CTO(디엠에스), 송정근 교수(동아대)

### “첨단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자해 신성장동력으로”, 2020년까지 50개 세계선도 품목 개발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50개 소재품목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자 지정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시장 선점과 수입대체 효과가 지대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R&D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소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10년간 추진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1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어, 금년 추가로 “고용점백금촉매 유금속의 초고순도화 기술개발” 등 10개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5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들은 매년 20억 원씩 10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며, 2020년까지 50개 과제에 대해 1조 원이 투입된다.

금번 선정된 10개 소재분야는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수요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경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선진국 진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계성능 소재, 에너지 소재, 사회간접 자본용 소재, 스마트소재, 바이오소재 등의 5개 소재분야가 63개 후보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 대형유통업체, 중기제품 판로지원 나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의 판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규모 구매자(대형유통업, 공공구매기관, 해외 에이전트)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공공기관)간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선선터(SETEC))에서 개최하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사 등 24개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와 20개 공공구매기관, 10개 해외수출에이전트 등 총 54개 대형 구매업체(기관)가 참여하여 1,000여개 중소기업과 1:1로 입점상품, 판매를 상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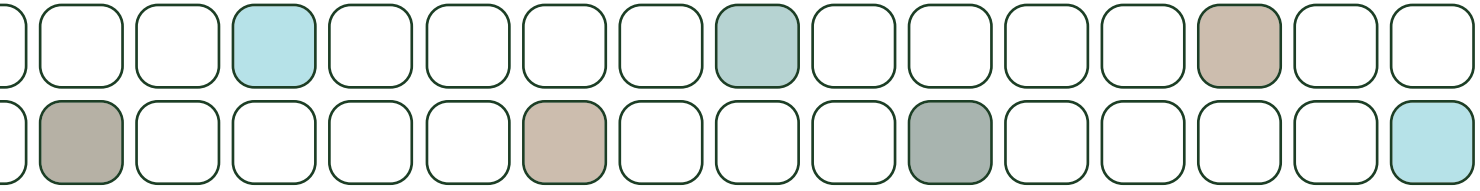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5대 홈쇼핑사 소속 현장 실무바이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MD 및 공공구매기관 구매담당자와 해외수출 에이전트까지 총 14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게 되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9월 30일(화)까지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02-6678-9325~26)

### DICON 2008 · 스토리텔링 워크숍 · 모바일 콘텐츠 2008 컨퍼런스 개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일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서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DICON 2008, 문화원형 컨퍼런스, 모바일 콘텐츠 2008 컨퍼런스를 통합 개최한다.

주요 연사로는 1979년 내놓은 <동전사 간담>으로 세계 애니메이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간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Tomino Yoshiyuki)가 참석한다. 이밖에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마블 애니메이션 회장 에릭 롤만(Eric Rollman), <포비튼 킹덤>, <에어포스원> 등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한 론 사이먼스(Ron Simons), 세계적



인 이등 프로그램 제작사 쿠키저 엔터테인먼트(Cookie jar Entertainment)의 회장 토퍼 테일러(Toper Taylor), 워너브러더스 애니메이션 총괄 부사장인 샘 레지스터(Sam Register) 등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여해 콘텐츠비즈니스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 KOGIA, 유럽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지침서 발간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은 유럽게임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보고서인 '유럽게임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 게임시장의 메이저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 유럽 16개국에 대한 게임 시장의 주요 통계 현황과 해당 국가 게임 분야 수출입 관련 법·제도, 투자 관련 정보, 주요 부처 연락처 정보, 플랫폼별 주요 인기 게임들에 대한 분석 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럽 게임시장 전문가 50여 명의 직접 인터뷰를 통한 플랫폼별(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단일 국가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묶어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클러스터링을 통한 시장 공략 전략이 일러이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9월 11일(목)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 예정인 '게임혁신기업 CEO 교류회'에서 유럽 게임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강연과 함께 동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 지티스(www.gitiss.org)에서 각국가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상반기 벤처투자 지난해 동기 대비 11.3% 하락

중소기업청이 올해 벤처캐피탈 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벤처기업에 대한 관련기관의 투자 규모가 4,3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34억 원에 비해 1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9,577억 원, 2009년 1조 231억 원, 지난해 1조 2,041억 원이던 투자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 4,374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이 추세대로라면 올 상·하반기 벤처 투자 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기청은 투자 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불안요인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회수시장의 침체 등 경기적인 요인 외에도 벤처투자재원이 크게 부족해진 것을 꼽았다.

투자 업종별로 보면 IT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명공학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조기 집행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내년도 모태펀드 재원을 최대한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 중기청, 중소기업간 M&A 맞춤형 서비스 실시

중소기업간 인수합병 즉 M&A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가 7월 2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소식을 갖고, 참여기관인 벤처산업 협회와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A 매도와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자금조달, 법률자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은 M&A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M&A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친환경자동차 관련 벤처 육성 의지 밝혀

현대·기아차는 환경 규제 등 국제 협과 경제 성장 속에서 큰 의미를 갖는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연료전지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해당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카에 이어 중형차 하이브리드카, 첫 연료전지차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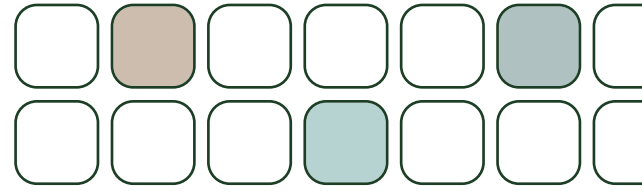
### 한국온라인 게임의 유럽시장 진출

SBA(대표이사 심일보,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 KOTRA(시장 조환익),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원장 김병환)은 공동으로 8월 20일, 21일 이틀간 독일 라이프치히 메세 국제전시장에서 한국온라인게임업체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2008 GC(Game Convention)연계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2008 유럽 GC 연계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다날,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10개 업체는 행사기간 동안 35개의 유럽 현지 퍼블리셔사와 약 110여건의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10개 업체는 무려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달성하였다

# VD RADAR



## 지역벤처

### 전주 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전주시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로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7월 21일-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마닐라), 태국(방콕), 미얀마(양곤)에 지역기업 10개사로 구성된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상담건수 145건, 상담액 78만 불, 수출계약 23만 불의 수출성적을 달성했다

이번에 파견된 (주)고려자연식품, 영농조합법인 웅고집장집 (주)오르테크, (유)영신 등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10개사는 유자차, 된장 등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친환경유기농비료, 사육기·정수기필터, 트랙터쟁기, 모바일게임, 원격외선 자동차건조장치 등 다양한 품목의 우수제품을 가지고 마닐라, 방콕, 미얀마 지역의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통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원격외선 자동차건조장치를 제작하는 (주)오르테크는 태국의 Kitcha Advance Technology CO. LTD로부터 원격외선 이동식 건조기의 건조비용 절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5만 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또한, 옛 전통적인 장 담그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아 우리 고유의 장맛을 완성시킨 영농조합법인 웅고집장집은 미얀마 현지 하이퍼마켓인 JPS CO. LTD로부터 8만 달러 상당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 광주시 하반기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광주시가 8월부터 기술력 보유 업체에 최대 5억 원의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신기술 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내 벤처기업 및 창업 5년 이내 광관련 기업으로, 2년 가치일 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벤처기업의 대출금리 가운데 2.6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하고, 대출기관은 광주은행이다.

한편, 신청양식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co.kr)에서 다운로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신용보증기금(062-361-1134)으로 하면 된다.

### 대전시, 중소기업 중국진출 적극 지원

대전광역시 해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대전시 해외사무소(중국남경, 심양)를 통하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업체를 8월 14일까지 모집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본사 및 공장이 대전에 소재한 업체, 대학, 연구소(영업소 제외)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와 유력 바이어 발굴,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참가 소요 경비 중 시장조사비, 출장 및 해외사무소 관계자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 춘천, 더존그룹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기 기대

춘천시는 더존그룹이 전용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일원에 14만㎡의 부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NHN 유치에 이어 더존그룹까지 이전되면 춘천은 명실상부한 IT기업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존그룹은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이뤄지면 129억 원을 들여 본사 및 연구동 등을 건립하고 내년 10월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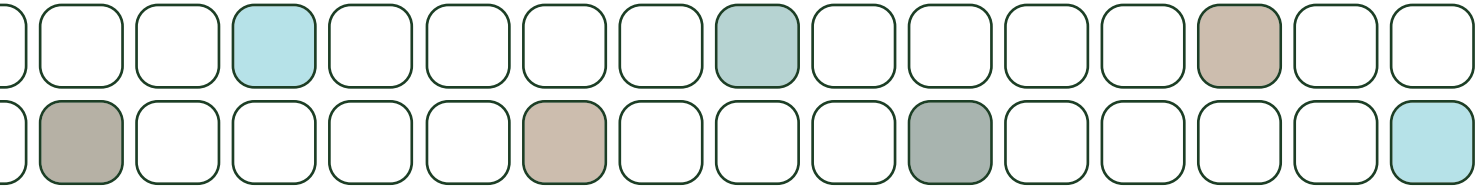
더존 디지털 산업단지에는 더존비즈온 등 10개 계열사와 8개 연구소가 입주하게 되며 2011년까지 1,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 더존의 협력사인 20여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유치도 함께 추진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벤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는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영상, 문화산업디자인 관련 기업 등 총 53개의 업체가 입주해 문화산업 관련 업종을 집적시켜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고용인원은 498명, 매출액은 291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목적실·회의실·교육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갖춰진 집적시설과 넓은 주차공간·공원 및 대학이 인접한 쾌적한 환경 조건으로 기업활동 하기에 최적지로 호응을 얻고 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인 멀티스튜디오관은 440㎡ 규모로 가상스튜디오, 음향녹음실, 사진촬영 스튜디오 카페룸 등을 갖추고 있어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들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발표회, 공연과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관’과 국제회의가 가능한 동시통역회의실인 ‘컨퍼런스룸’ 및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가능한 ‘전시 컨벤션홀’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올들어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Complex Park)를 벤처미팅하거나 방문한기관은 안양시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6개 기관 및 단체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잇달은 벤처미팅은 기업집적시설의 우수성과 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으로 문화 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유통문화소비지구 조성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문화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 가시화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Complex Park) 사업의 일환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시장 박맹우)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한문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는)는 8월 12일 ‘에너지산업 연구·개발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시 등 3개 기관은 협약서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센터(분원) 설치, 미래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보급촉진, 인력양성 및 교류, 연구시설 기자재 등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울산지역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방안 모색과 기술자문, 정보교환과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추진 기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에너지 학부를 가진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이 분야의 유능한 교수진을 비롯한 우수인력의 공동연구 활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응용기술이 접목될 경우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6월까지 국민보급형 산소호흡기 등 3개의 화재안전제품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산·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문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한다.

2008년도 산·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과제로는 『국민보급형 산소호흡기 개발』(과제책임자 : 노호성 과장), 『내화형 디지털도어록 개발』(과제책임자 : 최동호 과장), 『미디어DB보관용 내화형 박스개발』(과제책임자 : 성시창 차장) 등 3개 과제이다.

###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 미국 크레올과 공동연구 협약

국내의 유일의 광관련 전문 연구소인 지스트(GIST,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광과학기술 분야 미국 3대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센트럴플로리다 대학의 CREOL(크레올, 전자광학 및 레이저 연구센터)와 손을 잡았다.

지스트(원장 선우중화)에 따르면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이종민)는 미국의 세계적인 광공학 교육·연구기관인 센트럴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CREOL(The Center for Research in Electro-Optics and Laser)과 최근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인력교류를 통해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광과학기술 연구기관끼리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상호 교류협정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 연구원, 학생 등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의 수행등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정은 광과학기술이라는 연구분야 뿐 아니라 기관 특성에 있어서도 닮은 꼴 기관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 ETRI, 뉴질랜드 노령자 보호 로봇 기술 공동개발

선진국의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ETRI의 네트워크 서비스 로봇 기술과 뉴질랜드의 바이오 인포매틱스 기술이 노령자 보호 로봇에 적용되어 수출품목화 및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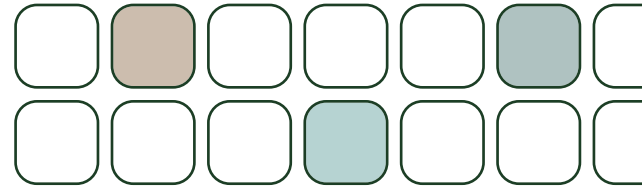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노령자 보호 로봇 기술 공동 개발



### 방재시험연구원, 중소기업과 3개 화재안전제품 공동 연구·개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제정우)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원장 권오윤)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8년 산·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2009년

# VD RADAR



과 사업화를 목표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과 공동으로 『오클랜드 대학 ETRI Elderly-Care 로봇 공동연구실』을 오클랜드대학에개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실에서는 올해 노령자보호 로봇 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네트워크 기반 실버케어 로봇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ETRI의 네트워크 서비스로봇 분야의 다양한 핵심기술을 오클랜드 대학에 제공하고 오클랜드 대학과 함께 서구사회에 적합한 실버케어 로봇을 공동개발 및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연구실은 지식경제부의 "IT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지능형 로봇 개발 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되며, 오클랜드 대학이 ETRI와의 공동연구를 목표로 2006년말부터 추진해온 뉴질랜드 과학재단(FFST)에 신청한 과제를 통해 신설하는 『Center for Healthcare Robotics』 내에 설치, 수행하게 된다.



## 해외벤처

### 세계 최초 3차원 집적회로 상용화 기술 공동 개발

나노종합센터(소장 이희철)가 미국의 벤처기업 비싱(사장 이상윤, 스탠퍼드나노랩소장 요시오 니시)과 공동으로 기존의 반도체생산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3

차원 집적회로(3DIC) 상용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반도체 회로를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로도 쌓을 수 있어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평면의 단일 웨이퍼 위에서만 반도체를 만들 때는 반도체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집적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갈수록 기술적 난제에 봉착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 기술을 활용하면 동일한 웨이퍼 면적에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져 메모리 용량은 늘리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차원 집적회로 기술은 반도체 회로를 위아래로 적층한 다른 기술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미국 벤처기업 비싱은 개발 기술을 사용해 2009년 제품 실장 검사를 마치고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싱은 3건의 원천특허 등록과 2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나노종합센터에서도 3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

### 2008년 전세계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 전년 대비 43.2% 성장, 약 18억 달러 규모

올해 전세계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이 지난해 대비 43.2% 성장해 약 1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디스플레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대표이사 권상세, www.displaybank.com)가 최근 발간한 '중소형 터치스크린 패널 산업동향'과 '중대형 터치스크린 패널 산업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은 2007년에 12억 불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올해는 약 18억 불 규모로 전년 대비 43.2%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성장세는 모바일폰용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이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폰용 터치스크린 패널은 2007년에는 전체 모바일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14.4%를 차지하여 약 1.7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전체 모바일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29.7%를 차지, 5.3억 불 규모로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Apple사의 iPhone으로 지난해부터 더욱 주목 받게 된 정전용량 방식(Capacitive Type) 터치 스크린의 점유율은 2007년 전체 모바일폰용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의 9%를 차지 했으며 2008년에는 약 12%, 2012년에는 약 23%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 구글, 벤처캐피털 진출 본격 나선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이 벤처 투자 사업에 진출한다.

7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최근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 형태로 벤처 투자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부사장 및 최고법률 담당(CLO)을 벤처캐피털 사업그룹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전 벤처사업가 출신의 윌리엄 매리스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IT 공공 기업들의 벤처 투자는 일반적인 수순으로, 인텔·모토로라·컴캐스트 등이 이미 벤처캐피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구글 벤처캐피털의 구체적인 투자대상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구글의 경영진은 이전에도 벤처캐피털 진출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분 투자보다 유망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다.